

신안군 '흑산도항' 내 양식시설 본격 철거

흑산도항 기능 개선 및 청정어항 조성 도모

신안군 흑산도항은 서남해권의 영해 관리를 위한 전략적 요충 항만으로서 항만시설 개선으로 영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항 주변 순환형 관광여건 정착을 위해 지난 2013년도 국가관리연안항 항만기본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67호)에 반영돼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흑산도항 내 일부 수면에는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27년 동안 양식업권(전북, 다시마)을 기반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국가어항 지정 및 흑산도항 개발사업으로 인해 양식행위가 '항만법' 제28조(금지행위) 규정으로 양식업 기반이 2025년까지 제한돼 있어 어업권의 소멸위기로 생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었다.

하지만, 신안군은 장기민원인 흑산항내 양식시설 철거와 관련해

조건부 협의로 승인받은 해당 어촌계(진리1구, 진리2구) 어업권 총 12.8ha(축구장 18개 면적)를 대상으로 대체 양식업권 개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어업종사자와 수차례 면담과 협의를 통해 양식업 손실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양식시설 매입조건으로 21어가, 양식가두리 964칸을 군비 100%로 총 14억원으로 2년간 분할지급을 통해 항내 양식활동 중단, 시설물 철거 등으로 그동안 양식시설들로 숨겨진 흑산도 관문의 비경을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로 지역민의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군과 어업 종사자간의 원만한 협의로 그동안 주춤했던 흑산도항 개발사업 또한 탄력을 받아 조속히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홍근 기자



신안군 흑산도항은 서남해권의 영해 관리를 위한 전략적 요충 항만으로서 항만시설 개선으로 영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항 주변 순환형 관광여건 정착을 위해 지난 2013년도 국가관리연안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안군 제공

영암쌀 특별할인 판매 실시

영암군에서는 영암군농협쌀 조합 공동사업법인과 함께 영암쌀 소비 촉진 일환으로 영암군 대표 브랜드 쌀 '달마지 쌀' 특별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영암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인 1포 사주기 운동으로 시작해 관내 기업체, 유관기관 사회단체, 재경 영암군 향우회원 등에게 지역쌀 사주기 서한문 등을 발송 소비 촉진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달마지 쌀 10kg을 6천원 할인해 3만 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영암 달마지쌀 구매를 희망하는 분은 군청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마케팅팀(061-470-2376)으로 또는 영암군 통합RPC(061-471-0215)을 통해 택배로도 받아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고품질 영암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영암쌀 홍보와 쌀 소비 촉진 행사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해양수산부, 강진군 어촌양식 현장 방문

최근 해양수산부 최현호 국장이 어촌양식 정책현장 점검을 위해 강진군 마량항 일원을 방문했다.

해수부, 전남도, 강진군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마량항 물양장 확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흑서기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해상 전복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해 고수온 대응사항 점검 및 어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또, 여름 휴가철 대비 서중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 방역 관리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해상 전복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양식장 주변 담수화로 전복 2,261만 마가 모두 폐사됐다. 이에 군에서는 우량종묘를 입식하고, 재해예방 양식그물로 전량 교체했으나, 종묘 생산시기가 3년 이상 소요돼 어업인의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다.

현장에 동행한 유미자 부군수는 전복 가두리 양식장 피해 상황을 강조하며, 피해어가에 대한 전복 중패 입식 지원사업과 노후화된 서중 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리모델링 및 체험 프로그램 발굴 등 활성화 지원을 건의했다.

현장점검에 참석한 해수부 관계자는 강진군에서 건의한 전복 중패 입식 지원,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강진원 군수는 "전복 중패 입식 지원사업과 어촌체험휴양마을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주민과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함께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종욱 기자

함평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홍보

함평군이 주민세 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군은 "2021년 주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이다. 납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기준 함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다. 단,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군은 과세 개편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서를 8월 초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로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 외에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우편·팩스·방문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목포시, 수족구병 예방 당부

목포시는 전국 수족구병 환자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발열,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 등이 특징이다.

수족구병이 발생하면 장난감과 물건 등의 표면은 비누와 물로 세척 후 소독제로 닦아야 한다. 소독제는 빈 생수통(500ml)에 종이컵 1/3의 염소계 표백제(4%)와 물을 섞어 사용하면 되는데 창문을 연 상태에서 소독하고 소독 후 환기해야 한다.

수족구병은 예방 백신이 없어 예방만이 최선이어서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 씻기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장난감·놀이기구·집기 등 소독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성태 기자

무안군, 양파 기계화 사업 본격 추진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8월 5일까지 양파 기계화 촉진과 확대를 위해 양파 기계정식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양파 기계정식은 관행에 비해 10a당 36만 5천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양파 생산의 모든 과정을 기계화 시 생산 노력시간이 76%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

군은 올해 200ha의 양파 기계정식을 목표로 사업비 3억 2천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기계정식을 이행한 농가에게는 현지 확인을 통해 신규농가에게 1ha당 203만 원, 기존농가에게 1ha당 95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육묘, 정식, 수확, 저장 등 양파농업 전 과정 기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국비 22

억을 포함 도비와 군비 등 44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양파 기계화 우수 모델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군은 전 과정 농업기계를 구입 후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농기계 내구연한 동안 장기 임대와 기계화 기반조성을 위한 육묘시설, 상자반침대, 토펙 등을 지원해주며 육묘의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 육묘기술 교육도 병행 추진 중이다. /고민재 기자

가고싶은 여름도시티 장성호 수변길

영암군농협쌀사업부

수변 데크길(왼쪽)

함평군농협쌀사업부

수변 데크길(오른쪽)

장성군 Jangseong